

소백수의 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어느해 겨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백두산밀영의 사령부귀틀집을 지나 소백수가에 이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소백수에 왔다가 물에 발을 잠그지 않을바에야 무엇때문에 왔겠는가고 하시며 먼저 물속에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도 성차지 않으신듯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흐르는 물을 손으로 떠드시고 소백수에 들어서니 물이 차지 않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심중에 간직된 숭고한 뜻을 미처 헤아릴수 없었다.

잠시 소백수의 흐름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소백수의 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세월은 계속 흐르고있다. 혁명의 세대들도 계속 변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소백수의 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우리는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을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이 열백번 변해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한다. ...

새길수록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중첩되는 고난을 뚫고 승리만을 펼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힘은 다름아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전통에 있으며 이 자랑스러운 정신과 전통을 곳곳이 이어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혁명정신과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굳게 간직해가는 백절불굴의 혁명가들, 애국자들의 대오는 소백수의 흐름처럼 언제나 도도하고 용용하리라!

영광의 그 시각 일군들의 가슴은 이런 확신으로 하여 후덥게 달아올랐다.